

NAJU  
*Web  
Contents*

2022년 08월 14일 09시 06분

# 목차

목차	2
나주목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3
1금성관	3
2나주목문화관	3
3금학헌(나주목사내아)	3
4나주읍성 서성문	3
5나주향교	4

나주목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강바람을 가르는 황포돛배 처럼	영산포구와 근대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힐링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 의향	영산강변 문화체험
모두가 꿈꾸는 혁신도시 빛가람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금성산	고대왕국 마한과의 만남
멋진 추억을 만드는 이색체험		



### 1 금성관

금성관은 나주가 호남의 웅도로써 그 중심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유적이다. 금성관은 나주목에 있는 객사이다. 객사는 고려·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하였던 관사를 말한다. 근대에는 나주인들의 항일정신을 대표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창호·마루등 내부를 개조하여 나주 군청 청사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크게 변형되었다. 그래서 나주시는 1976~1977년까지 금성관을 완전 해체한 뒤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 2 나주목문화관

나주목문화관은 983년 나주목이 된 후부터 1895년까지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나주는 고려 성종 때부터 1895년 나주 관찰부가 설치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주목이 유지된 곳이다. 문화관 내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지방 행정 단위였던 ‘목’에 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항나주 목이 되다’, ‘나주목사 부임행사’, ‘나주읍성 둘러보기’, ‘관아 둘러보기’, ‘다시 태어나는 나주’ 등 8개의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0명에 이르는 목사들의 명패와 목사의 하루 일정 등도 살펴볼 수 있다. 나주목문화관은 나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 3 금학헌(나주목사내아)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목사들이 한양에서 나주에 내려와 산 집이 바로 나주목사 내아이다. 나주목사 내아는 지리적으로 명당자리로 꼽힌다. 마당에는 벼락을 맞아도 수백 년 째 목사 내아를 지키고 있는 유명한 팽나무가 있다. 나주시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훼손된 목사 내아를 ‘금학헌’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해체, 복원에 숙박이 가능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KBS 인기 프로그램 1박2일팀이 숙박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금학헌에는 현재 6개의 방이 있다. 한두 달 전에 예약해야만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32호로 지정된 이 기념물에서 하룻밤 숙박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받지 않는다.

### 4 나주읍성 서서문

나주읍성의 서쪽에 위치한 서성문은 나주읍성 수성군과 동학군의 전투, 즉 우리 민중끼리의 전투 역사를 가진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성문이다.

1894년 7월 1일 나주를 점령하기 위해 동학군이 서성문으로 내달렸으나 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이에 녹두장군 전봉준은 당시 나주목사 민종렬과 협의를 위해 나주읍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문이 서성문이다.

1815년에 발간된 '나주목여지승람' 서문에 "영금문으로 기록된 편액이 있었다"는 기록에 따라 '영금문' 현판을 제작하여 걸었다. 영금문은 '두루 나주를 비춘다' 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예상된다.



## 5 나주향교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에 있는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2007년 7월 31일 사적 제 483호로 지정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주는 약 1,000년 동안 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전라도의 대표적 고을이었다. 현존하는 관아 건물과 향교 건물들도 그에 맞는 수준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어 중세사회를 연구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평가되었다. 둘째, 나주 향교는 평지에 들어선 전묘후학의 배치형태를 지닌 전형적인 조선시대 향교의 건축모범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나주향교는 조선시대 교육시설의 규모를 따지면 성균관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교육과 제사의 고유기능을 간직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NAJU

# ***Web Contents***

